



입은 무거우며
손놀림은 날카롭게
천년 활자
생생히...

내년 8월 31일까지 총 5986경판 인경 계획 국내 인쇄 최고 기술자 7명 전통 방식으로 재현



해인사 시간판 인경은 총 5,986개의 경판을 인쇄, 10질 3000여권의 책을 묶는 큰 불사다.

해인사 시간판 인경불사 첫 날

9월 1일,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판전 안에서 시간판 인경이 시작됐다. 장경판전 뒤 별도로 마련된 인경처는 흙 바람에 인경종이가 날아갈까라 비닐로 에워싸져 있고, 인경불사에 동참하는 7명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천년 전의 '인쇄기술'이 재현되고 있었다. 경판에 맞춰 재단된 '인동 한지'가 인경 기술자인 변영재, 김희수, 한홍익, 정숙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되자 능숙한 솜씨로 인경 작업이 시작됐다. 정성스럽게 갈아놓은 먹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먹판에 몇 숟 떠놓은 후 먹솔로 먹판의 먹을 묻혀 경판에 칠하고 한지를 조심스럽게 엮는다. 이 먹은 한국유일의 먹 제조 기술 전승자인 경북 건천의 유병조씨가 해인사 주변의 소나무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력으로 한지 위를 신속 문지른 후 한지를 떼어내자 경판의 글

귀가 차분히 인쇄되어 나왔다. 인경기술자들은 인경상태를 확인 후 교정을 보는 스님에게 넘긴다. 혹 인경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번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대나무로 만든 포쟁이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교정 작업은 인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차 교정은 교정도감인 해인사 도서관장 원장 스님의 감독 하에 해인사 강원의 두 확인 스님(지원·해공 스님)이 맡았다. 인쇄된 한지를 넘겨받은 스님은 빠르게 그러나 날카롭게 인경이 잘랐던 부분을 찾아 들어갔다. 혹 한 획이라도 덜 찍힌 부분이 포착되면 여지없이 체크된다. 1차 교정을 담당하는 해공 스님은 '사간장 인경 검수일지'에 경판 이름과 매수, 불량 상태를 기록하며, 인경상태를 일일이 확인해 들어갔다. 천년을 이어 온 인쇄기술이 재현되고 있는

현장에는 '속삭 속삭' 마력으로 한지를 문지르는 소리와 한 장 한 장 한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뿐 고요했다. 인경작업에 몰두한 동완 대종의 얼굴에는 어느새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랑곳 않는다. 인경을 하는 기술자나 교정을 보는 스님이나 종이를 헤아리고 나르는 보살이나 그 자체의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다. 어느 수행현장이 이보다 더 명정할 수 있을까? 입은 무거우며 눈과 손놀림은 날카롭다. 선기가 서려있는 수행자의 마음을 읽었다고나 할까? 해인사는 주지 현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성 스님을 총도감으로 하는 인경도감을 설치해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승 스님은 "사간판 인경은 9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고 1년이 지나야 인경불사의 전 과정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며 오랜 시일 정성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거대한 불사임을 강조했다. 해인사는 2006년 8월 31일까지 시간판 5,986경판을 모두 인경 할 계획이다. 인경이 끝나면 1질당 약 300권의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10질을 인경 해 일부는 해인사가 오동나무 서가에 소장하고 일부는 연구 자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소금물에 경판을 묶는 과정.



1차 교정작업을 거친 경판을 묶는 과정.

■ 최고 인경 기술자 변영재 거사는?
목판 훼손 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
15세부터 인경기술을 익힌 변영재(58·사진) 거사.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경 기술 보유자다. 1960년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 불사에도 동참했고, 40여년 동안 서운 봉은사,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하도 쌍계사 등 전국주요사찰의 인경을 도맡아 했다. 게다가 머리카락을 이용한 마력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술보유자다. 또, 능화판(표지에 문양을 새겨넣는 판)을 이용해 배접을 한 후 제책하는 한국고유의 전통 제책법까지 인경의 모든 것을 꿰고 있다.



■ 인경(印經)이란?
목판에 새겨진 경전을 종이에 찍어 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의 준비, 판전에서 경판 내리기, 종이 재단, 경판을 소금물로 깨끗이 닦기, 인출작업, 1차 교정, 1차 제본(가제본), 2차 교정, 제책, 제목 불이기로 이어진다.

■ 재료와 도구
한지-변색되지 않으며, 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탁나무를 가지고 전통 기법으로 만든 한지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며 깨끗할 뿐 아니라 보존 능력도 탁월하다.
먹-예부터 먹의 빛은 천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나무를 태운 그늘음으로 만든 송연묵(松煙墨)을 으뜸으로 꼽는다.
마력-마력은 먹을 묻힌 경판에 한지를 얹고 그 위를 팔고 두 문지른 때 사용하는 도구다. 목판의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찍히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마력을 사용해야 한다. 마력은 깨끗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뜯어 30℃의 물에 넣어 어느 정도 주물러준다. 물에 뜯은 머리카락을 3일간 햇빛에 말린 후 하나하나 실로 꿰 후 밀랍을 묻혀 만든다. 하루 종일 인경을 할 경우 마력은 20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

■ 국간판과 시간판
법보종찰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판은 국간판과 시간판으로 나뉘어 있다.
국간판(國刊板)-국간판은 국가가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여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을 말하는데, 1232년(고종 19) 몽고의 제 2차 침입으로 초초대장경이 불타버려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만든 고려 팔만대장경판(81,258장, 국보 제32호)이 재조본국간판(再彫本國刊板)이다.
시간판(寺刊板)- 시간판은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목판을 말한다. 해인사시간판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 전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다. 이중 28종 2725판은 국보 206호로, 26종 110판은 보물 734호로 지정돼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 불호 소영
장량 신장가
의식 사용 용도

금강불교예술회관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장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생명의 빛
생명의 氣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악열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아야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증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 “침” 쑥뜸의 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경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 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